

Monthly Global Flows

2015. 2. 16

신 3저효과로 1분기 실적 이후 외국인 유입 기대

Strategist /투자전략팀장

김중원

6309-2721

joongwon.kim@meritz.co.kr

RA

정다이

6309-2962

daijeong@meritz.co.kr

연준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 강세

2월 들어 KOSDAQ 지수는 600pt를 돌파했다. 한편, KOSPI 시장은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5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년부터 대형주가 부진했고 중소형주, 더불어 정책기대가 높은 KOSDAQ 종목이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 KOSPI와 KOSDAQ의 밸류에이션 갭도 크게 확대되었다. 현재 KOSPI 밸류에이션은 PBR 기준으로 1배 수준이지만 KOSDAQ은 2.3배로 KOSDAQ PBR이 KOSPI 대비 무려 115% 높은 상황이다. 비록 그리스 협상이 조기 타결된다 해도 KOSPI의 2,000선 회복을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 2015년 상반기 중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라는 대형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강세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KOSDAQ 시장의 600선 돌파는 2015년 상반기 미 연준의 금리인상, 그에 따른 신흥국 자금 이탈 가능성으로 대형주의 반등이 제한된 가운데 핀테크 등 정책수혜가 높은 중소형주의 틈새시장이 강세를 기록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신 3저효과로 2015년 상장기업 실적개선의 원년이 될 전망

1분기 상장기업의 실적은 저유가, 저금리, 원화약세의 신 3저효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1분기 국내 상장기업의 실적개선은 한국증시와 중소형주 대비 대형주의 투자매력을 높여, 실적시즌 이후 한국 시장으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을 전망한다. 2015년은 신 3저 현상으로 상장기업 실적도 최근 3년 동안 감익에서 벗어나 실적개선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4년 11월 이후 경기선행지수, 기업설비투자율과 제조업 PMI 등 주요 경기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기지표 개선모습은 상장기업의 실적전망에도 반영되어 2015년 상장기업의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2015년 KOSPI 영업이익 전망도 1개월전 대비 1.37% 개선되었다. 또한, 2014년 중 마이너스권을 지속했던 2015년 이익수정비율 추이도 현재 플러스 전환을 앞두고 있다.

2015년 상반기 연준의 금리인상이라는 대형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흐름으로 상장기업의 실적이 1분기부터 개선되면 주식시장에 과도했던 중소형주 강세는 마무리되고 대형주 반등이 예상된다. 글로벌 자금도 1분기 실적시즌 이후 신 3저효과에 수혜가 높은 IT, 운송, 유틸리티, 건설 업종 중심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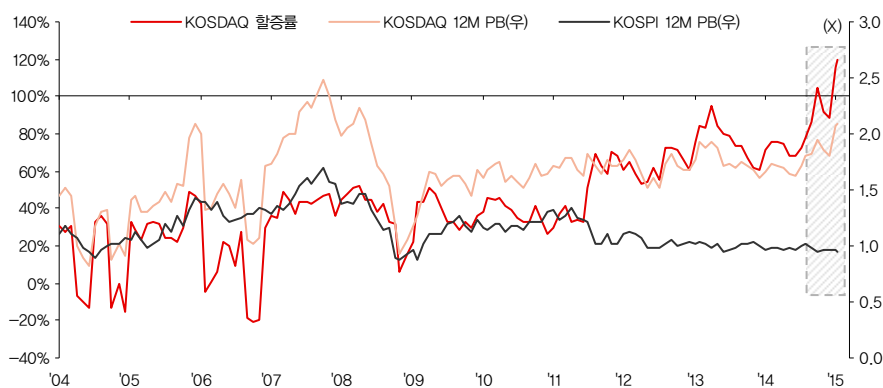
연준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대형주 정체 심화

1월 글로벌 금융 자금 동향은 한국증시에 비우호적이었다. 1월 글로벌 자금은 신흥국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유출되었지만 아시아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순유출을 기록해 차별된 흐름이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 증시의 투자매력 약화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상장기업의 1분기 실적이 저금리, 저유가, 저환율의 신 3저 효과로 실적개선이 기대되고 이는 한국증시 투자매력 개선으로 연결될 전망이다. 1분기 실적 시즌 이후 한국 주식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의 유입이 기대된다.

2월 들어 KOSDAQ 지수는 600pt를 돌파했다. KOSDAQ의 600선 돌파는 2008년 6월 이후 7년만이다. 한편, KOSPI 시장은 최근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50선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년부터 대형주가 부진했고 중소형주, 더불어 정책기대가 높은 KOSDAQ 종목이 강세를 기록하다 보니 KOSPI와 KOSDAQ의 밸류에이션 갭도 크게 확대되었다. 현재 KOSPI 밸류에이션은 PBR 기준으로 1배 수준이지만 KOSDAQ은 2.3배로 KOSDAQ PBR이 KOSPI 대비 무려 115% 높은 상황이다. 현재 KOSPI와 KOSDAQ의 밸류에이션 갭은 IT 버블 당시만큼 높은 상황인데 이는 KOSDAQ 시장의 강세 영향도 존재하지만 당시 KOSPI가 PBR 기준으로 현재와 같이 저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주식시장은 그리스 채권협상 관련 소식과 국제유가 반등에 따라 등락 좌우되는 모습이다. 비록 그리스 협상이 조기 타결된다해도 KOSPI의 2,000선 회복을 장담하기 힘들어 보인다. 무엇보다 2015년 상반기 중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라는 대형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의 강세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KOSDAQ 시장의 600선 돌파는 2015년 상반기 미 연준의 금리인상, 그에 따른 신흥국 자금이탈 가능성으로 대형주의 반등이 제한된 가운데 핀테크 등 정책수혜가 높은 중소형주의 틈새시장이 강세를 기록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그림1] 대형주 투자매력 둔화로 중소형주 중심 KOSDAQ 강세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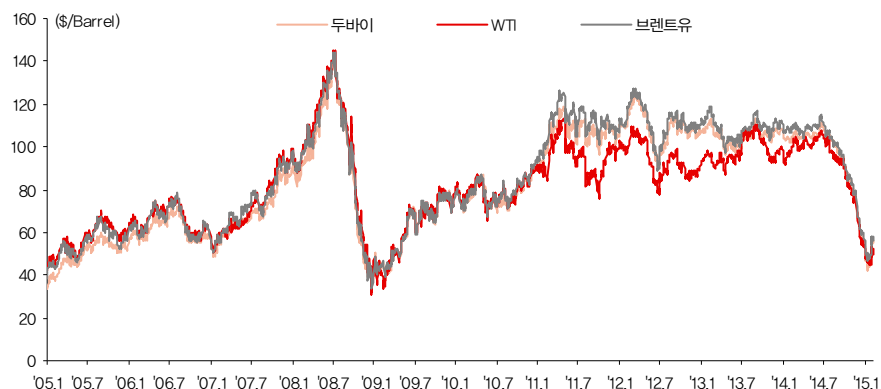
신 3저 효과로 한국증시 투자 매력 개선 기대

1분기 상장기업의 실적은 저유가, 저금리, 원화약세의 신 3저효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1분기 국내 상장기업의 실적개선은 한국증시와 대형주의 투자매력을 높여 실적시즌 이후 한국시장의 글로벌 자금 유입을 전망한다. 결국, 2015년은 신 3저 현상으로 KOSPI도 최근 3년 동안 감익에서 벗어나 실적개선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월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42불을 저점으로 현재 55불선까지 회복했다. 전년 8월까지 국제유가가 100불선을 유지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절반선까지 하락한 셈이다. 국제유가 급락이 셰일가스 경쟁력을 앞세운 미국기업들의 실적악화로 연결되며 뉴욕증시 조정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뉴욕증시 조정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강화하는 점이 국내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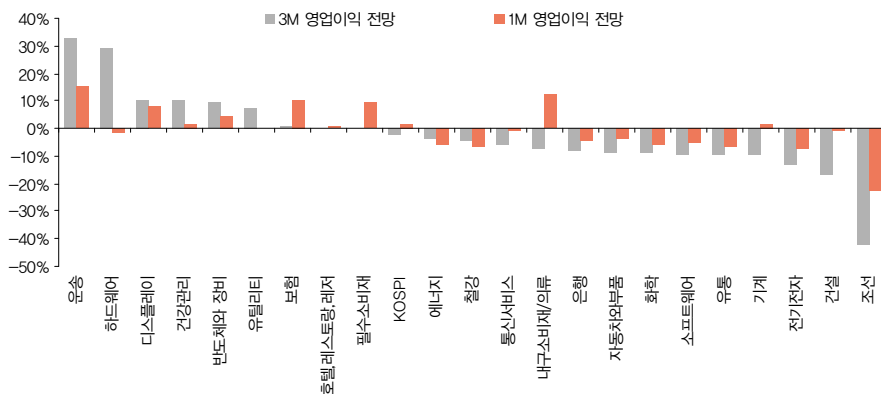
하지만, 궁극적으로 국제유가 하락은 한국과 대만 등 가공무역국의 수혜가 높을 것이다. 또한, 금번 국제유가의 급락은 수요 둔화에 따른 영향이 아니라 공급과잉 우려 영향으로 유가 하락으로 국내기업의 매출원가 절감과 가계 가처분 소득 개선이 기대된다. 이미 운송과 유틸리티 등 유가 하락의 수혜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이익전망 또한 개선되고 있다.

[그림2] 저유가로 한국과 대만 등 가공무역국 경제의 수혜가 가장 높을 전망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 수혜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전망치 개선



자료: WiseFn,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신3저 효과가 기대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비중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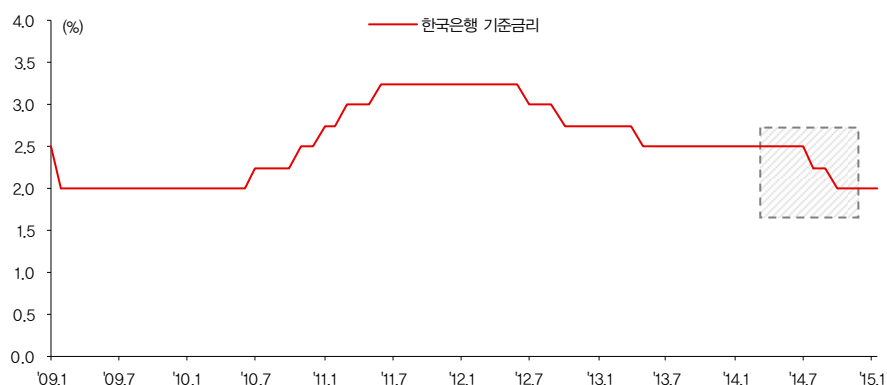
2014년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국내 경기둔화로 금리인하를 2회 단행했다. 그 결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2.0%이다. 전년 11월 이후 저금리 기조로 건설경기 지수와 국내 설비투자가 개선세가 보이는 점이 긍정적이다. 한은의 금리 인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망되어 저금리 기조가 국내 주택부분을 포함한 건설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금리와 정책효과로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준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달러화 강세와 원화 약세 현상도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경제에 긍정적일 부분이다. 또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와 단기외채 비중의 감소로 달러대비 원화는 일방적인 약세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달러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일방적인 약세를 기록하지 않고 1,100원 전후로 견조한 흐름을 기록해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환율 대응능력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 3저효과로 전년 11월 이후 경기선행지수, 기업설비투자율과 제조업 PMI 등 주요 경기 지표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기지표 개선모습은 상장기업의 실적전망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2015년 KOSPI 영업이익 전망도 1개월전 대비 1.37% 개선되었다. 또한, 2014년 중 마이너스권을 지속했던 2015년 이익수정비율 추이도 현재 플러스 전환을 앞둔 만큼 개선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연준의 금리인상이라는 대형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흐름으로 상장기업의 실적이 1분기부터 개선으로 주식시장에 과도했던 중소형주 강세는 마무리되고 대형주 반등이 예상된다. 글로벌 자금도 1분기 실적시즌 이후 신 3저효과에 수혜가 높은 IT, 운송, 유틸리티, 건설 업종 중심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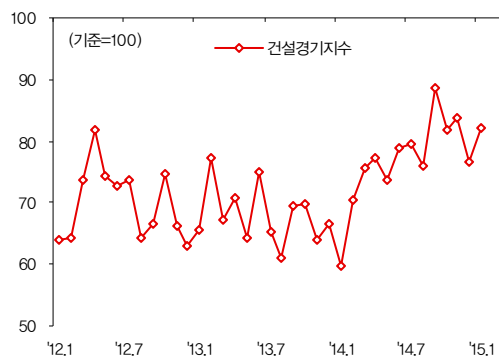
[그림4] 2014년 기준금리 2회 인하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하락



자료: 한국은행,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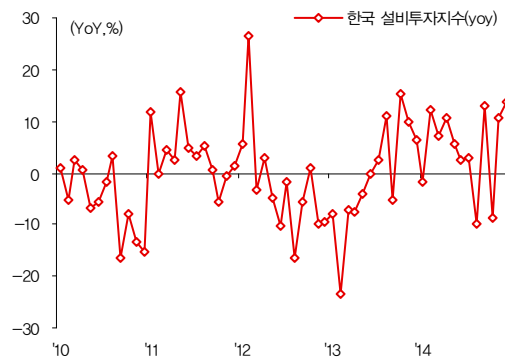


[그림5] 저금리와 정책효과로 건설경기 개선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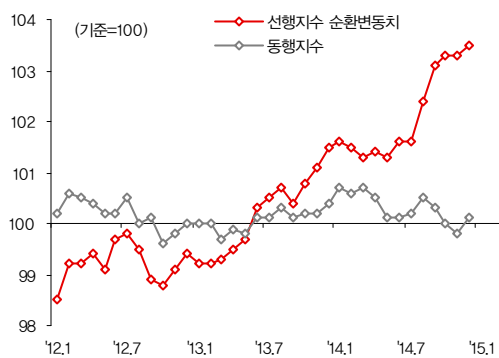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설비투자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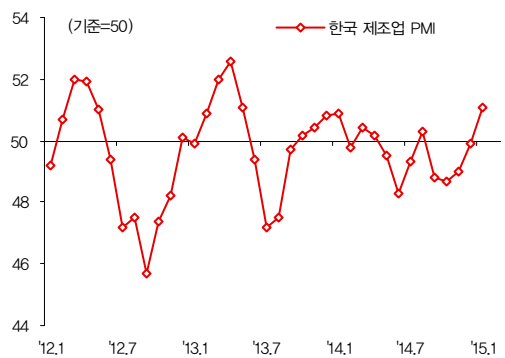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신 3저 효과로 경기지수 개선되기 시작



자료: 통계청,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제조업 PMI 기준치 상회



자료: 통계청,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I. Global Fund Flows

선진국향 주식형, 채권형 펀드향 순유입 지속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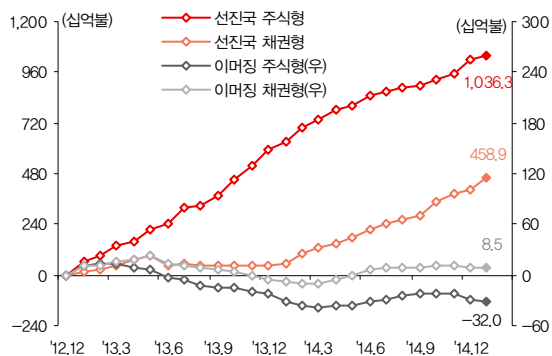
**글로벌 채권펀드
선진국 펀드향
자금유입 지속중**

‘13년 1월 이후 글로벌 자금은 선진국 펀드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13.1월 이후 누적 순유입액은 선진국 주식형 펀드 1조 360억불, 선진국 채권형 펀드 4,589억불로 큰 폭의 유입을 기록한 반면, 이머징 채권형 펀드는 85억불의 순유입, 이머징 주식형 펀드는 320억불의 순유출을 기록하였다.

‘15년 1월 글로벌 자금은 선진국 주식형 펀드로 127억불 순유입, 선진국 채권형 펀드로 513억불이 순유입 되었다. ‘14년 하반기 이후 선진국 향 주식형 펀드로의 순유입액은 ‘14년 7월 229억불에서 크게 확대된 모습이다. 선진국 향 채권형 펀드의 경우 월 평균 250억불 이상의 순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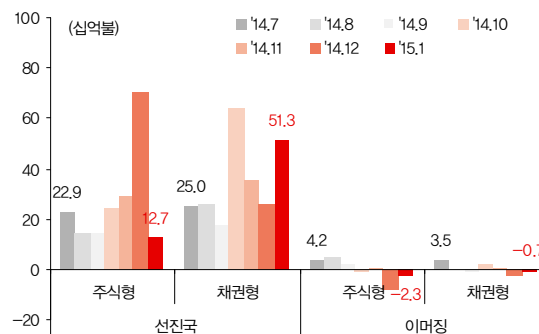
‘14년 하반기 이후 이머징 펀드향 순유입액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 ‘15년 1월 이머징 주식형 펀드로부터 23억불, 이머징 채권형 펀드에서 7억불의 순유출이 발생하였다. 이머징 주식형 펀드향 순유입액은 ‘14년 7월 42억불에서 점차 축소되어 ‘14년 10월 이후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이머징 채권형 펀드로 ‘14년 7월 35억불의 자금이 유입되었으나 이후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 ‘15년 1월 7억불의 순유출액을 기록하였다.

[그림9] ‘13년 이후 펀드 순유입액 추이(‘13.1월 이후 누적)



자료: Morningstar,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14년 하반기 이후 펀드 월별 순유입(순유출액) 추이



자료: Morningstar,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가별 투자동향

벤치마크 대비 초과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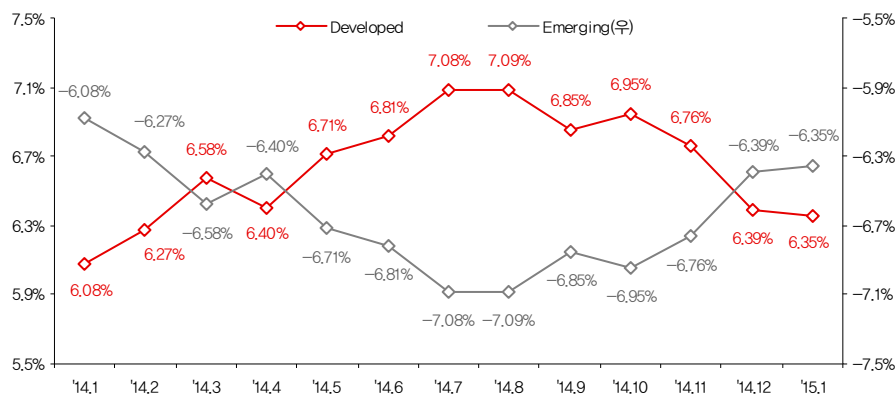
선진국 초과비중 감소

이머징 초과비중 증가

‘15년 1월 벤치마크 대비 이후 선진국 펀드의 초과비중은 6.35%로 전월 대비 0.04%p 감소했다. 이머징 펀드의 벤치마크 대비 초과비중은 -6.35%로 전월 대비 -0.04%p 상승했다. 비교 대상인 S&P500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국가 비중을 설정하는데, ‘14년 상승 추이를 이어왔던 선진국펀드의 초과비중은 이머징 대비 선진국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14년 4분기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대로, 벤치마크 대비 이머징 펀드의 초과비중은 ‘14년 하반기 이후 증가하는 추이를 이어오고 있다.

글로벌 펀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펀드의 비중은 ‘15년 1월 66.1%를 기록 전월대비 0.18%p, 연초대비 1.21%p 상승했다. ‘14년 12월 벤치마크 대비 미국 펀드의 초과비중은 +16.4%p를 기록했다.

[그림11]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 주식펀드 인덱스 대비 초과비중 월별 추이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 선진국 및 이머징국가 분류는 S&P Global BMI Index 기준

[표1]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국가별 벤치마크 대비 보유비중

(단위: %, %p)

	보유비중(%)	벤치마크비중(%)	초과비중(%p)	-1M (%p)	-YTD (%p)
미국	66.3	51.1	15.2	-0.6	-1.6
영국	6.8	6.9	-0.1	0.0	0.5
프랑스	1.4	3.0	-1.6	0.1	0.3
독일	0.9	2.8	-1.9	0.0	0.3
일본	2.4	8.0	-5.7	0.0	0.1
한국	0.4	1.6	-1.2	0.0	0.1
대만	0.2	1.4	-1.3	0.0	-0.1
브라질	0.2	0.9	-0.7	0.1	0.1
중국	1.5	2.6	-1.1	0.1	-0.4
인도	0.4	1.1	-0.7	0.0	-0.1
인도네시아	0.1	0.3	-0.2	0.0	0.0
멕시코	0.1	0.5	-0.4	0.0	0.0
남아프리카	0.3	0.8	-0.5	0.0	0.0

주: 1) 보유비중 = 국가별 주식 공모펀드 설정액/ 글로벌 주식 공모펀드 설정액 ('14.12월 기준)

2) 초과비중 = 보유비중 - 시총압중비중

3) -1M, -YTD(%p)는 보유비중 기준

4) 벤치마크-MSCI World Index와 FTSE World Index 시가총액 가중비중('14.9월 기준)

자료: MSCI, FTSE, Morningstar,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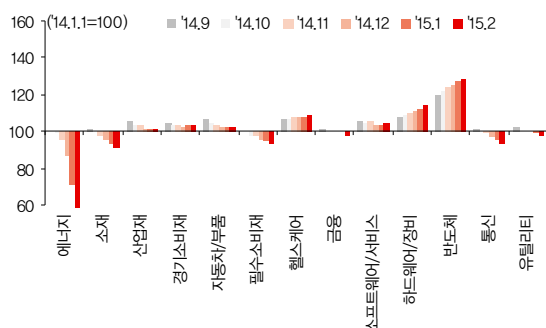
II. 글로벌 섹터별 벨류에이션

경기둔화 우려로 글로벌 섹터 실적 전반적으로 하향조정

유로존 불확실성
심화된 가운데
유가하락세 지속으로
에너지섹터 큰폭 하향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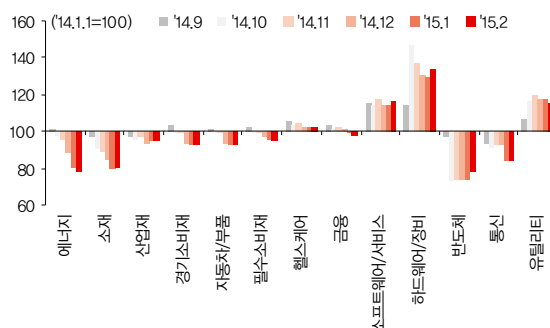
그리스 좌파의 총선 승리 이후 그렉시트 우려가 제기되는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섹터 전반적으로 이익추정치가 하향 조정되었다. 이 가운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선진국 및 이머징 섹터의 이익추정치가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업종의 수익성 악화가 원인으로,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 모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12] 선진국 섹터별 12M FWD EPS 전망치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이머징 섹터별 12M FWD EPS 전망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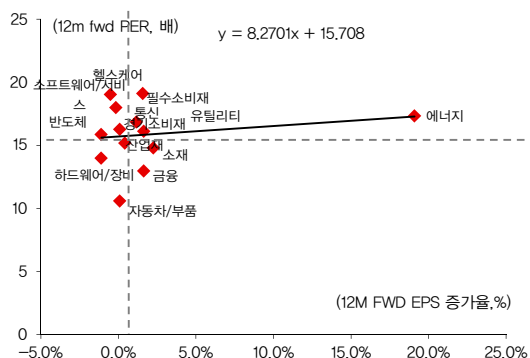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섹터
시장 대비 할증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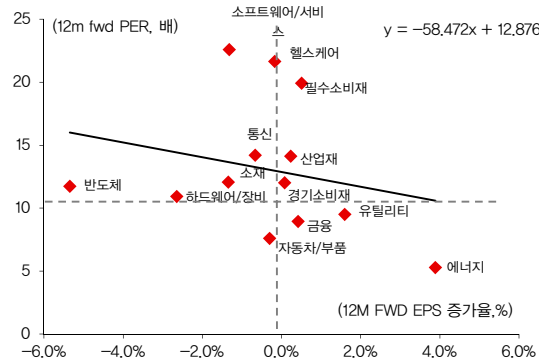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섹터는 12M FWD PER('15.2.10 기준)을 기준으로 선진국과 이머징에서 모두 시장 대비 할증 거래되고 있다. 선진국 필수소비재 섹터의 12M FWD PER은 19.1로 시장대비 23.4% 할증. 헬스케어 섹터의 12M FWD PER은 19.0으로 시장대비 22.9% 할증거래 되었다. 이머징에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12M FWD PER은 22.6으로 시장대비 115% 할증거래 되었고, 헬스케어의 경우 21.6으로 106.1%, 필수소비재는 19.9로 89.6% 할증거래 되었다. 12M FWD PER과 EPS 증가율 측면에서 벨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섹터는 선진국에서는 하드웨어/장비, 자동차/부품 섹터이고, 이머징에서는 자동차/부품 섹터로 나타난다.

[그림14] 선진국 섹터별 PER과 EPS 증가율 비교



자료: Thomson Reuter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이머징 섹터별 PER과 EPS 증가율 비교



자료: Thomson Reuters,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III. 아시아 외국인 주식매매 동향

아시아시장 외국인 주식매매 동향

외국인 최근 한달 간 한국,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 유가증권 시장을 순매수하는 모습이다. 한국은 -5.1억불, 일본 -18.42억불을 순매도 했으며, 대만 34.78억불, 인도 28.69억불, 인도네시아 4.1억불, 태국 0.8억불, 필리핀 7.3억불 순매수 했다.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 주요국 증시를 순매도 했다. 외국인의 아시아 증시 순매수의 이유는 유로존 추가경기부양 결정이후 신흥국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고, 신흥국 통화약세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외국인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2] 아시아 주요국 외국인 주식 순매수

(단위: 백만불)

	한국	일본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최근 1 주	436	N/A	842	-107	197	184	205	5
최근 4 주	-510	-1,842	3,521	3,166	202	304	742	10
2015 년(YTD)	-773	-7,956	3,478	2,869	410	80	730	1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 최근 1주 '15.1/30~6일, 최근 4주 '14.1/9~'15.2/6일

[표3] 아시아 주요국 달러 대비 통화 절상/절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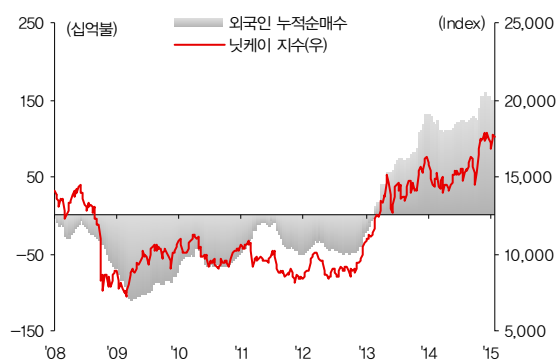
(단위: 백만불)

	한국	일본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최근 1 주	-0.4%	1.4%	-0.1%	-0.2%	-0.7%	-0.1%	0.3%	-0.2%
최근 4 주	1.2%	0.5%	-0.8%	-0.1%	0.5%	-0.6%	-1.2%	-0.3%
2015 년(YTD)	0.1%	-0.3%	-0.1%	-2.1%	1.9%	-0.6%	-0.9%	-0.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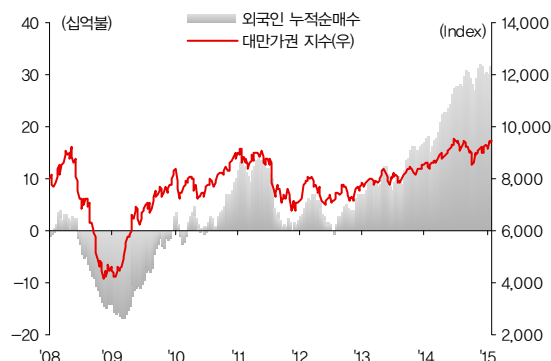
주: 최근 1주 '15.1/30~6일, 최근 4주 '14.1/9~'15.2/6일

[그림16] 일본 외국인 순매매 추이('08년 이후 누적)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7] 대만 외국인 순매매 추이('08년 이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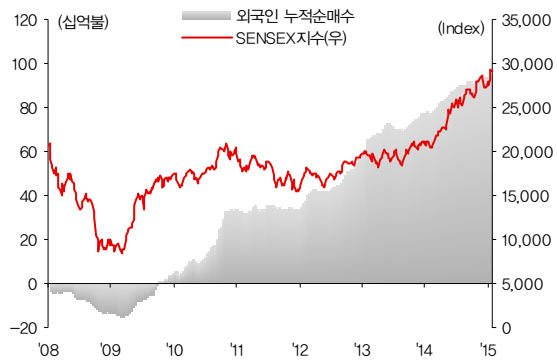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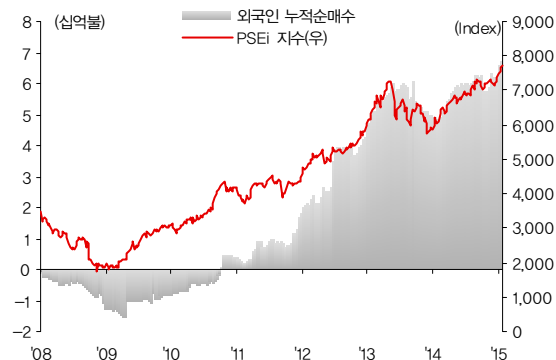
Monthly Global Flows

[그림18] 인도 외국인 순매매 추이('08년 이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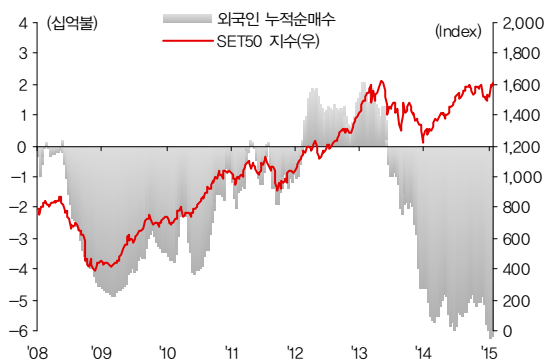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9] 필리핀 외국인 순매매 추이('08년 이후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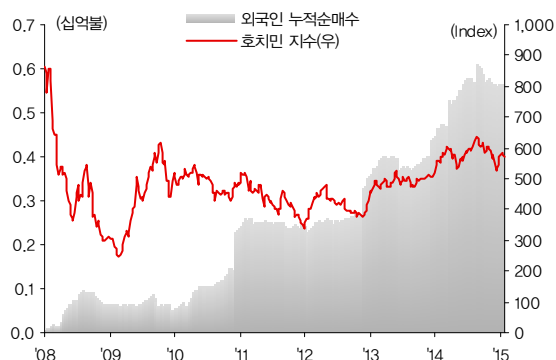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태국 외국인 순매매 추이('08년 이후 누적)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베트남 외국인 순매매 추이('08년 이후 누적)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IV. 국내 펀드플로우

유가증권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1월 외국인, 기관 순매도 개인 순매수

‘15년 1월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을 1.3조원 순매도했고, 기관도 1.0조원 순매도하였다. 반면 개인은 4,986억원 순매수하였다. ECB 경기부양정책 발표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에 대한 매수세를 확대했으나, 그렉시트 우려로 인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자금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표4] 국내 유가증권 시장 투자주체별 투자 동향

(단위:억원)

	주간순매수				월간 누적 순매수			연간순유입 2015년
	2/2~6일	1/26~30일	1/19~23일	1/12~16일	1월 증감	12월 증감	11월 증감	
외국인	5,150.6	-4,343.0	2,370.0	-7,328.0	-12,638.3	-21,067.3	15,414.2	-7,487.7
개인	-8,925.5	-62.7	-5,627.4	6,400.6	4,986.4	-10,550.5	-21,115.5	-3,939.1
기관	3,515.1	2,958.2	-102.5	-4,876.5	-10,376.4	23,471.7	8,405.2	-6,861.3
금융투자	117.1	1,950.8	1,516.0	-1,435.9	-7,587.4	7,445.4	7,549.1	-7,470.2
보험	-280.4	-65.5	-14.3	119.0	135.9	3,901.0	1,625.3	-144.6
투신	655.8	-6,195.5	-912.7	-1,151.8	-5,627.1	4,662.4	3,367.7	-4,971.3
사모펀드	156.6	-610.5	248.8	-1,003.2	-3,806.6	-105.5	-3,502.8	-3,650.0
연기금	3,918.2	8,167.5	-1,176.5	-856.8	8,075.2	11,417.8	-825.7	11,993.3
기타법인	259.9	1,447.5	3,360.0	5,803.9	18,028.2	8,146.1	-2,703.9	18,288.1

자료: KRX, WiseFn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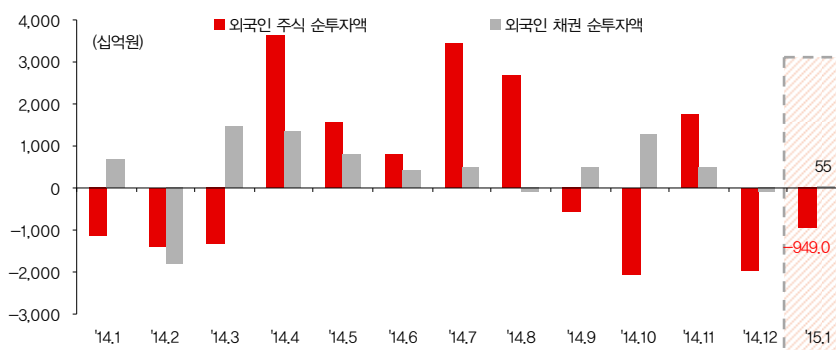
주: 유가증권 KOSPI 상장주식 기준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외국인 주식,채권 순매도

‘15년 1월 외국인은 상장주식을 9,490억원 순매도했다. 이는 전월 대비 1.0조원 감소한 수준. 국가별로 영국이 1.0조원 순매도, 노르웨이와 홍콩이 각각 0.2조원 순매도 했음. 최대 순매수국은 사우디로 0.5조원을 순매수 하였으면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0.3조원, 0.2조원 순매수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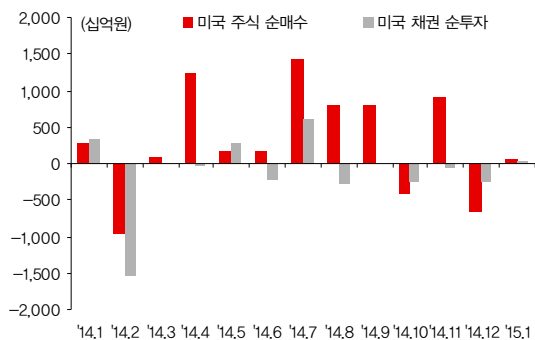
[그림22] 국내 유가증권 시장 투자주체별 투자 동향



자료: WiseFn, 금융감독원,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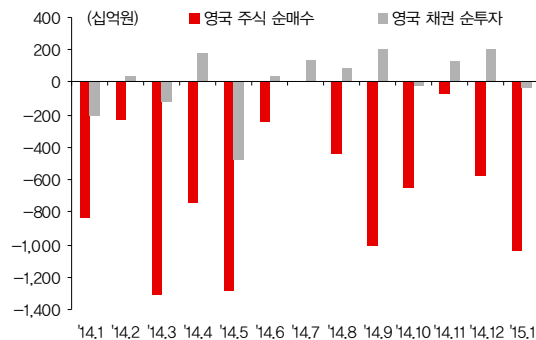


[그림23] 미국 투자자 국내 상장증권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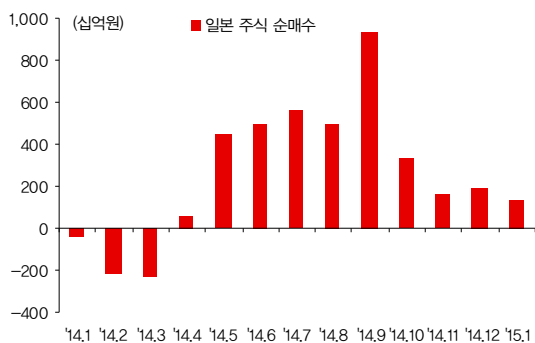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4] 영국 투자자 국내 상장증권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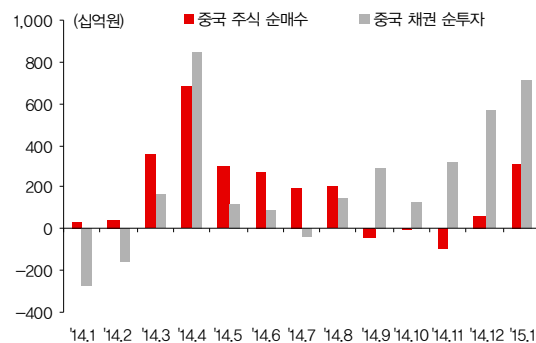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5] 일본 투자자 국내 상장증권 투자 동향



자료: 금융감독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6] 중국 투자자 국내 상장증권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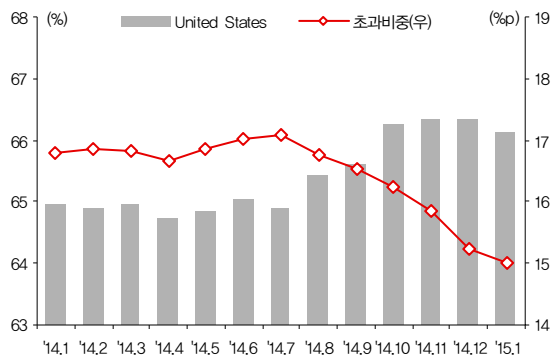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ppendix I 글로벌 공모펀드와 인덱스 대비 초과비중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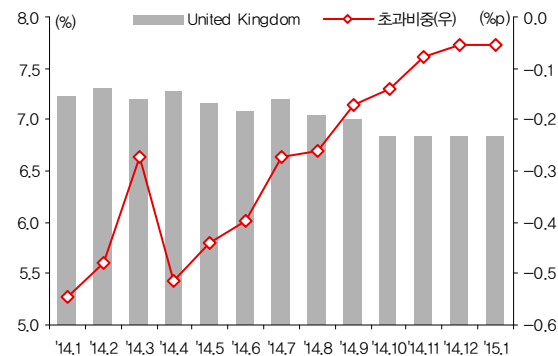
선진국 공모펀드 초과비중 동향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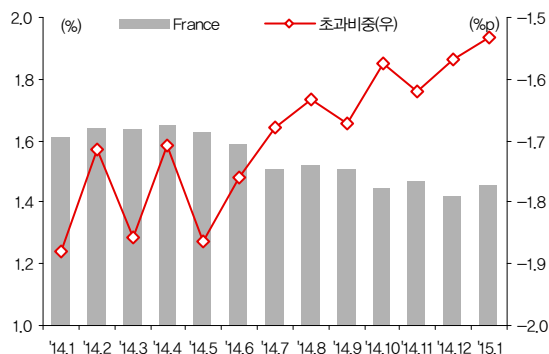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증권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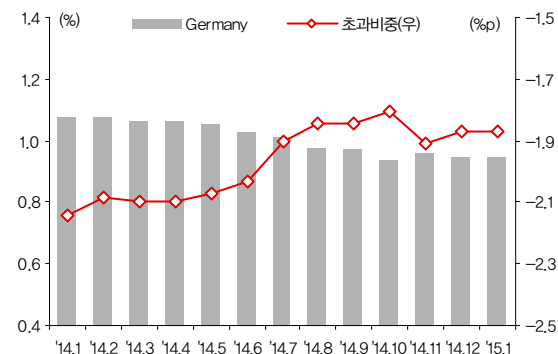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증권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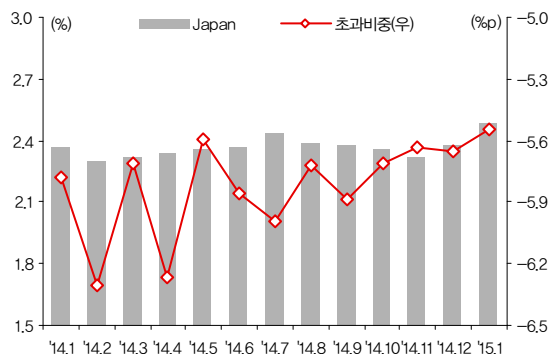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증권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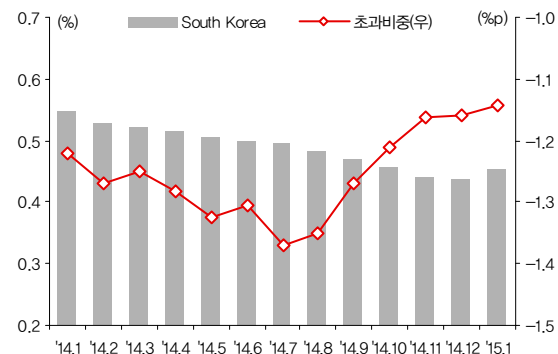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증권

일본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증권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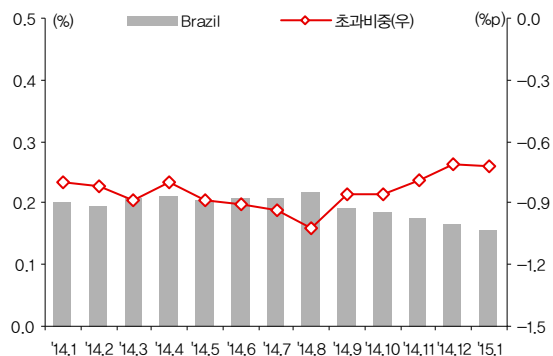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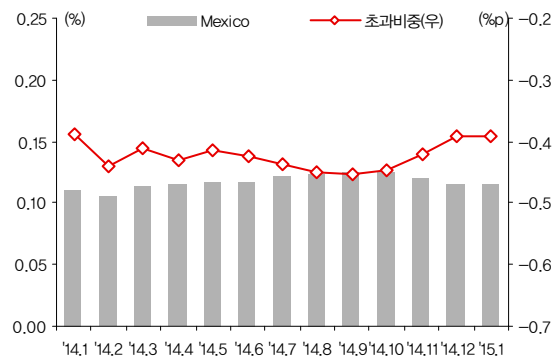
이머징 공모펀드 초과비중 동향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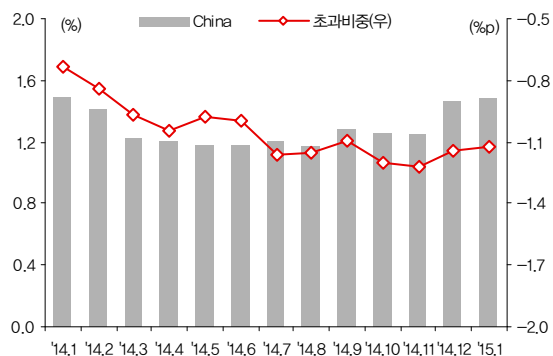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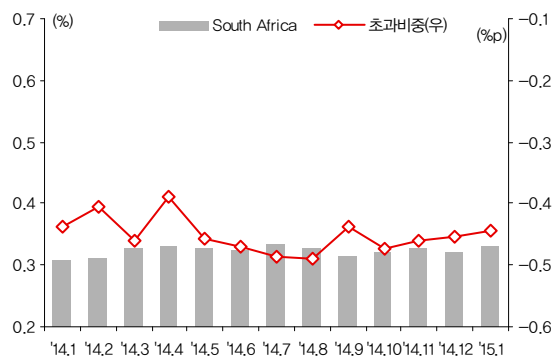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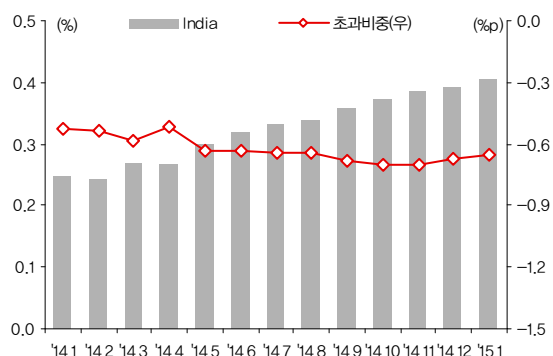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

남아프리카 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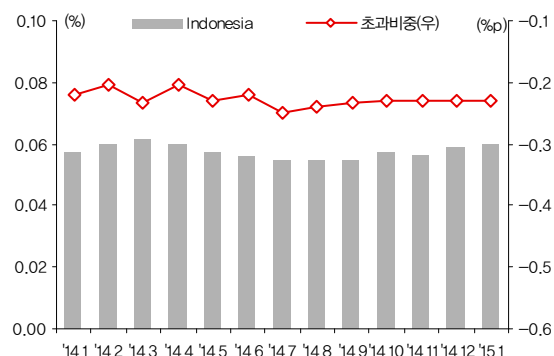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

인도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

인도네시아



주: 초과비중 값 '0' 이상은 overweight, '0' 이하는 underweight
자료: Standard & Poor's, Morningstar, 메리츠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5년 2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5년 2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 분석 담당자는 2015년 2월 16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중원, 정다이)

동 자료는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중 “제 2장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공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